

# 볼라드에 '꽝'...서구, 확인 없이 설치자 특정해 피소 '분통'

광주 서구가 관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충분한 조사 없이 특정해 해당 당사자가 구상금 소송에 휘말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30분께 풍암동 황새봉 등산로 입구에서 A(17)군이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은 입은 A군은 약 3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 비용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에서 A군 측은 낙상 사고 당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에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

지사(이하 건보)에 진술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구에 사고 당일 경위서 등과 함께 볼라드 설치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문제는 서구가 현장 조사는 물론, 볼라드 설치자로 특정된 B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보에 B씨의 인적 사항을 회신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과거 A군이 사고가 난 지점에 볼라드를 불법 설치해 서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 당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구는 이 일련의

## 2023년 말 황새봉 등산로 입구서 10대 골절상...3개월간 치료 건보, 인적사항 요청...당사자 "이미 철거" 주장 불구 소송 당해

과정에 대한 내용을 건보에 전달했다.

건보는 서구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B씨에게 A군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재판은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있다.

B씨는 "A군이 낙상 사고로 다쳐했다는

정보도 이전에 내가 설치했던 볼라드를 치웠다"며 "행정 기관이 당사자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설치했다'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군의 낙상 사고 관련 자료를 건보에 회신할 때 B씨에게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묻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민

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건보에서 듣지 못했다. 그랬다면 자료 제공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보가 사고 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한 이가 누군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때는 A군이 다친 지 3개월 여가 지난 뒤여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건보가 요청했을 때 우리(서구청)와 B씨가 볼라드 관련 소송을 하고 있던 터라 소송과 관련된 줄임말"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이처럼 자신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임에도 B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될 것인데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 행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인적 사항을 회신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소송까지 당했는데 비용 걱정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성혁 기자



“쿠키 만들기 재밌어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초등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쿠키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예리 기자

## “감정적 대립” “자료 미확인”...지역 사법경찰 ‘민낯’

광주변호사회, 작년 광주·전남청 777명 평가...평균 점수는 전년대 ↑

‘수사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피고소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 지속’, ‘요청에 따라 보내준 자료를 수개월이 지난에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관련 자료 요청’.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와 함께 이 같은 문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경찰 수사에 일회했던 변호사 15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의 ▲청명·공정 ▲진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에 대해 점수(만점 100점)를 매겼다.

평가 대상자는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777명, 접수 건수는 1천270건이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처음 평가를 실시했던 지난해에 비해 1.83점 상승한 78.4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변호사회는 “사법경찰 평가 이후 인식의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지적된 수사 지원 사례가 올해도 있었고 일부 경찰관은 여전히 고압적 태도를 보여받으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소속 경찰관이 일정 횟수 이상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에 대해선 평균 점수를 산출해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 선정된 우수·하위경찰서 등도 발표했다.

하위경찰관서로는 광주 북부경찰서와 여수경찰서, 우수경찰관서에는 광주경찰청과 광양경찰서가 선정됐다. 전체 경찰관서의 평균은 71.8점이었는데, 북부서와 여수서는 각각 83.8점과 86.6점을 받았다.

광주·전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한 광주청과 광양서의 점수는 76.8점과 85.5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자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에 이름을 올린 ‘우수 사법경찰’은 ▲남대원 수사관(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 ▲박종필 수사관(광주 동부경찰서 수사팀) ▲이광범 수사관(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었다. 상위 3%의 평균 점수는 97.1점 이상이다. /안재영 기자

## ‘남편 살해·아내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법원 “재범 위험 크고 교화 가능성 적어...영원히 격리”

지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40대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일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들 흉기로 찔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를 협박하며 성추행했는데, 이 모습은 피해자들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지켜봤다.

신고 우려에 박씨는 숨진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했고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영 기자

## ‘사건 브로커 뇌물수수’ 전 치안감 항소심서 무죄

1심 징역 1년6개월...2심 법원 “유일 증거 진술 신빙성 없어”

‘사건 브로커’로부터 승진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흥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 전 치안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때 사건 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B 전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전 치안감은 뇌물수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씨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며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100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상 유일한 증거인 성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진 청탁 시기·방법, 돈을 건넨 경위·시기 등에 대한 성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대목에서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계속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승진이 이례적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성씨와 B 전 경감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던 성씨는 징역 5개월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던 B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